

## OECD 국가 아동복지수준 비교

-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지출 수준이 가장 낮은 GDP의 0.458%임

- UNICEF 지표를 기초로 한 아동 삶의 질 수준은 5개 영역에서는 양호하였으나, 주관적 복지의식은 최하위로 주관적인 삶의 질 수준 제고를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 등의 적극적 개입정책이 필요함

### 1. 복지국가별 아동가족복지지출

□ 주요 OECD 국가의 아동가족복지지출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아동지출 수준을 진단함. 2007년을 기준으로 볼 때,

○ 자유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1.426%를 지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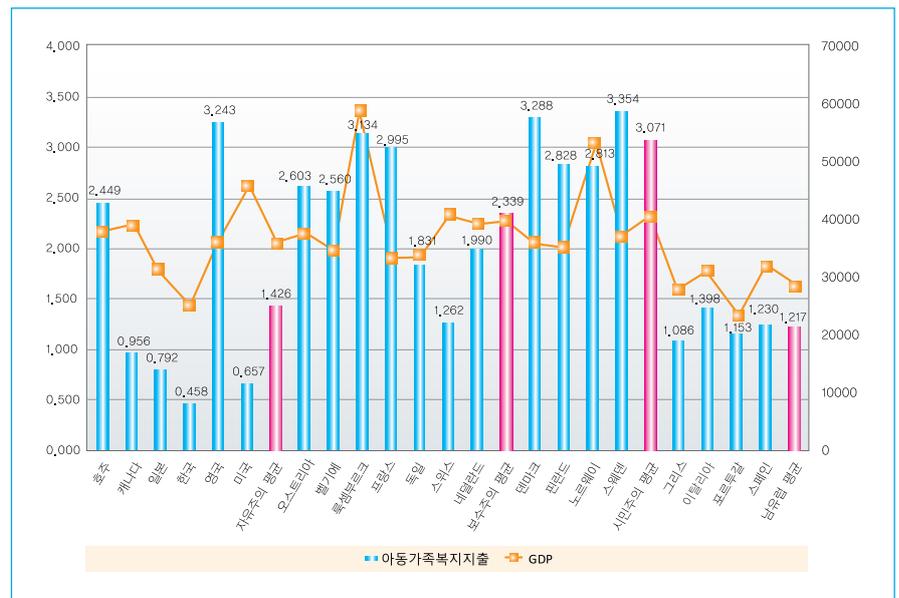
- 한국은 0.458%를 지출하여 이 국가군 중 지출수준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은 미국(0.657%)임
- 영국은 3.243%를 지출하여 스웨덴, 덴마크 다음으로 많은 지출을 하였음

○ 보수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2.339%를 지출함

○ 시민주의 복지국가는 평균 3.071%를 지출함

- 남유럽 국가들은 평균 1.217%를 지출하여 낮은 지출을 함

[그림 1] GDP 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국가별 비교 (2007년)



자료: OECD (2010), Social Expenditure Database, <http://stats.oecd.org>

## 2. 대상별 1인당 복지예산 비교

□ 지난 25년간 아동 1인당 복지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97년 680원, '97년 3,500원, '08년 8,800원이었다가<sup>1)</sup> 2011년에는 20,019원이 되었음

- 그러나 여전히 사회복지사업의 주요 대상인 노인, 장애인에 비하여 낮음
- '11년 대상별 1인당 복지비: 노인 - 85만원, 영유아 - 83만원, 장애인 - 27만원

[표 1] 복지대상별 1인당 복지비 비교 (2011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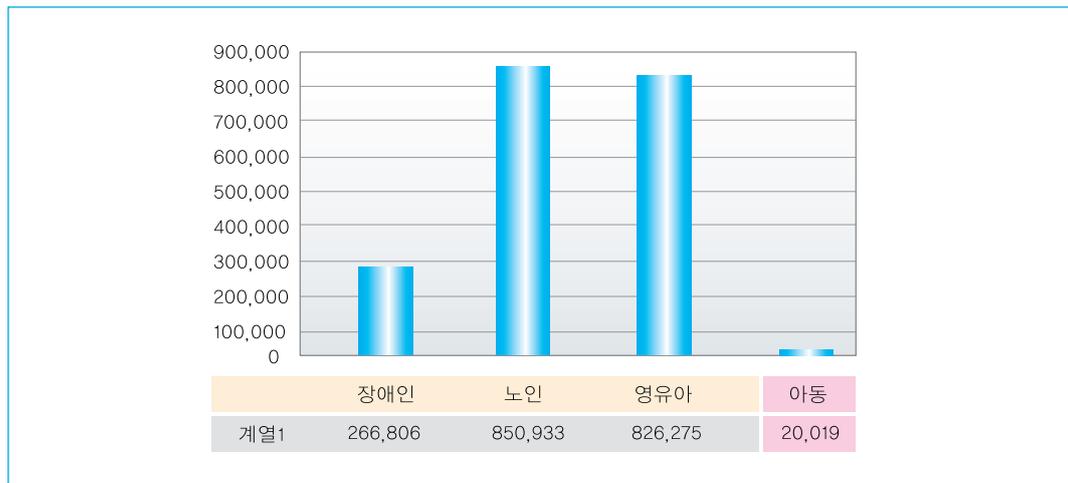
구분	장애인	노인	영유아	아동
복지예산 (백만원)	647,539	3,714,510	2,478,380	169,154
인구수 (명)	2,427,000	4,365,218	2,999,461	8,449,567
1인당 복지비 (원)	266,806	850,933	826,275	20,019

주: 장애인: 등록장애인인구수 ('09년), 보육: 6세미만 ('05년), 아동: 6-18세('05년)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년도

[그림 2] 1인당 복지비 비교 (2011년)

(단위: 원)



자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각년도

## 3. 아동복지예산과 아동빈곤율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복지지출의 규모와 아동빈곤율과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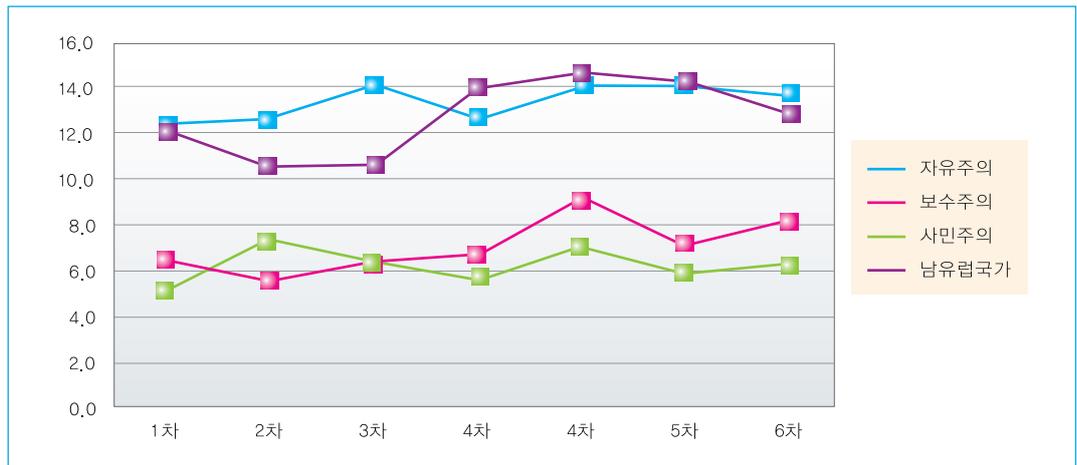
- 아동 및 가족에 대한 지출이 많은 사민주의 국가에서 아동빈곤율이 가장 낮았고
- 그 다음으로 지출을 많이 하는 보수주의 국가에서의 아동빈곤율이 두 번째로 낮음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이 낮은 자유주의 및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은 높은 편임

1) 2008년까지는 18세 미만 아동을 모두 대상으로 함. 2011년경우는 6-18세 미만을 대상으로 추계함

- 특이한 점은 남유럽국가의 아동빈곤율이 자유주의국가보다 약간 낮은 추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임
- 이에 대해서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서 원인 규명이 필요한 부분임
- 영국과 미국은 아동에 대한 조기 투자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아동빈곤율은 많이 감소하지 않은 상황이나, 향후 적극적 정책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봄

[그림 3] 복지국가 유형별 아동빈곤율 비교

(단위: %)



자료: Luxembourg Income Study home page, <http://www.lisproject.org/key-figures/key-figures.htm>

#### □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음

- 그 결과 아동가족복지지출과 아동빈곤율은 대체적으로 부적인 상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음
  - 즉, 아동가족복지지출비중이 높을수록 아동빈곤율이 낮았음
-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높고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로는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사민주의 국가와 프랑스, 오스트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의 보수주의 국가가 대부분을 차지함
  - 자유주의 국가로는 영국과 호주가 있음
- 아동가족지출이 높음에도 여전히 아동빈곤율이 높은 국가로는 독일, 아일랜드, 뉴질랜드가 있음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낮음에도 아동빈곤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과 스위스, 그리고 네덜란드임
- 나머지 국가는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은 낮고 아동빈곤율은 높은 국가로 캐나다, 일본, 미국등과 같은 자유주의 국가와 이탈리아, 스페인, 그리스와 같은 남유럽국가 속함

[그림 4] 아동가족복지지출 전체와 아동빈곤율과의 관계

(단위: %)



주: 1) X, Y 중심축은 평균임. 전체 현금지출, 현물지출과 세제혜택 비용이 포함됨. (GDP 대비 비율임)  
 자료: OECD (2007), Family Database

## 4. 아동복지수준 국제비교

UNICEF(2007)에서 측정한 지표를 활용하여 6개 차원의 삶의 질을 국제비교 함<sup>2)</sup>

물질적 복지와 건강 및 안전수준

○ 물질적 복지는 상대적 소득빈곤, 무직 가구, 빈곤 관련 지표로 측정함

- OECD 회원국 중 21개국 아동 물질적 복지 수준 점수를 보면, 평균 이상을 보이는 국가군에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스위스, 캐나다, 벨기에, 오스트리아, 프랑스, 네덜란드, 체코임
- 평균 100점이 안되지만 95점 이상 국가군에 스페인, 호주, 독일, 이탈리아가 있다. 영국은 일본, 포르투갈, 미국 등과 함께 95점 이하 국가군에 속함
- 한국의 평균은 102.6으로 중상위권에 속함<sup>3)</sup>

○ 건강과 안전 구성 요소는 0-1세의 건강, 예방을 위한 의료서비스, 안전임

- 건강과 안전 평균 점수를 보면 노르딕 4개국은 여전히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보수주의 유형이 비교적 중상위권에, 자유주의 유형은 중하위권에 위치하고 있음
- 한국은 평균 110.5로 비교적 상위권에 속함

<sup>2)</sup> UNICEF (2007), Child poverty in perspective: An overview of child well-being in rich countries: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the lives and well-being of children and adolescents in the economically advanced nations, Innocenti Research Center, Report Card 7

<sup>3)</sup> 본고 OECD 및 한국 통계는 박종일 · 박찬웅 · 서효정 · 염유식 [(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에 기초함

[그림 5] OECD 회원국 아동의 물질적 복지수준과 아동의 건강과 안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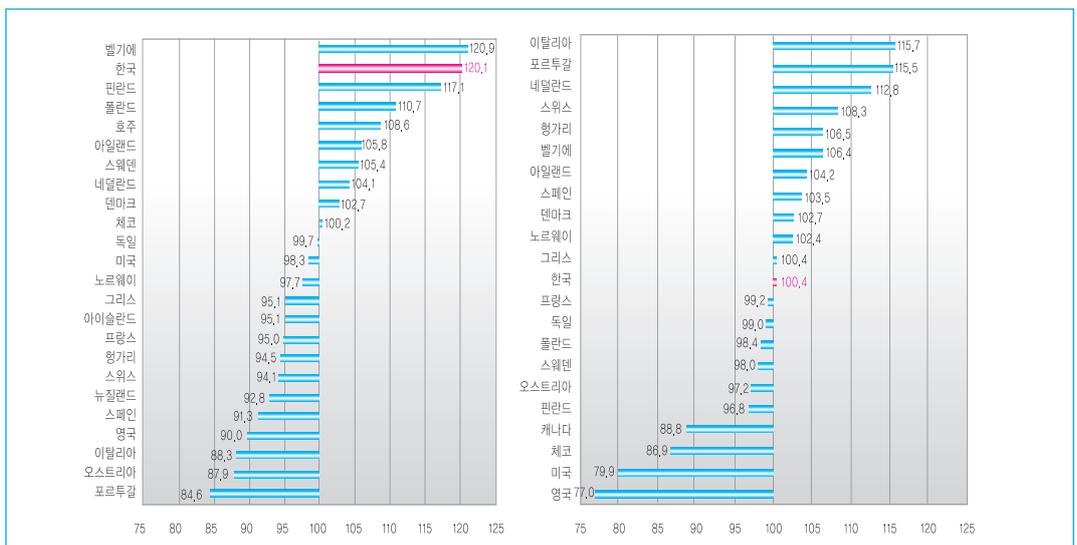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 □ 교육복지와 가족과 또래관계 수준

○ 교육복지를 구성하는 요소는 15세 아동의 학업 성취, 기초 능력 이상 교육, 취업으로의 이행임

- 교육복지에서 평균인 100점 이상 국가군에 노르딕 4개국 이 모두 속하긴 하지만, 물질적 복지, 건강과 안전에서와 달리 상위권에 벨기에, 캐나다, 폴란드 등 국가가 위치하고 있다
- 영국은 평균 90점 미만으로 하위권에 속하고 있음
- 한국은 평균 120점으로 매우 높은 점수를 보이고 있음

[그림 6] OECD 회원국 아동의 교육복지수준과 가족과 또래 관계수준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 아동의 관계를 구성하는 요소는 가족 구조, 가족 관계, 또래 관계가 있음

- 아동의 가족과 또래 관계 빈도를 측정하여 평균 점수화한 결과를 보면 다른 요소들에 서와 달리 복지국가 유형 차이가 유의미하게 반영되지 않음
- 평균 100점 이상 국가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위스, 벨기에, 헝가리,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노르웨이, 그리스 등 복지국가 유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남유럽 국가들이 모두 상위에 위치하고 있음
- 노르딕 국가 중 스웨덴과 핀란드는 독일, 프랑스, 폴란드, 스웨덴, 오스트리아와 함께 95-100점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영국은 80점 이하로서 최하위를 보임
- 한국은 평균 100.4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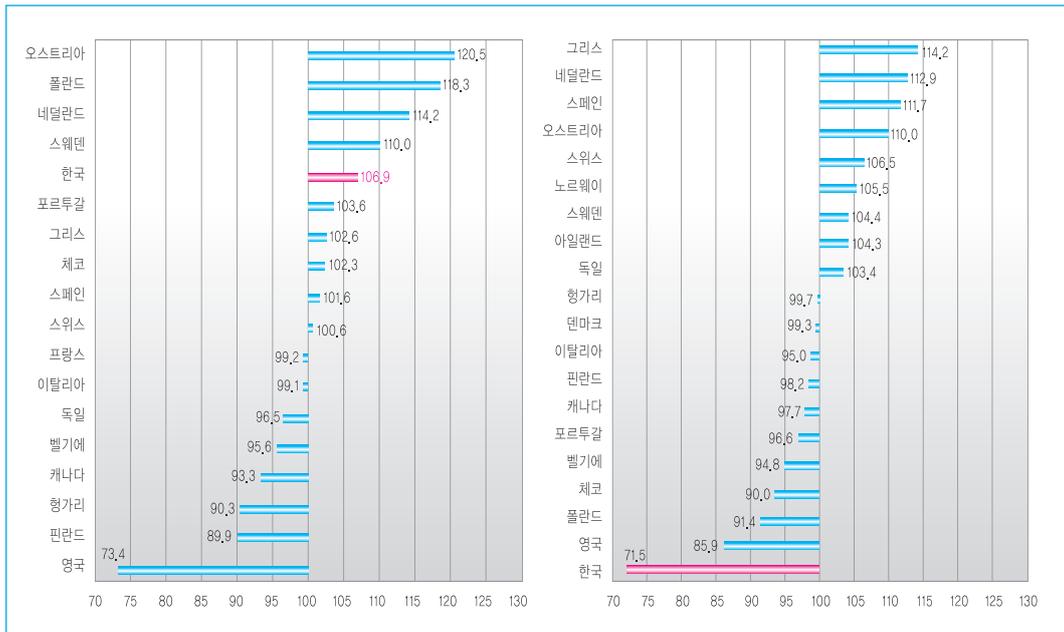
□ 행동과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인식

○ 행동과 위험 구성 요소는 건강 행동, 위험 행동, 폭력 경험임

- 아동의 행동과 위험 양상에서는 노르딕 국가들이 상위권에 있음
- 100점 이상 점수를 보인 국가군에 스웨덴, 폴란드, 네덜란드, 아일랜드, 스페인,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체코, 이탈리아, 독일, 스위스, 노르웨이가 속함. 평균 점수 이상 국가군에 노르딕 국가 외에 주로 남유럽 국가와 보수주의 유형 국가가 있음
- 100점 이하 국가군에는 보수주의 유형으로서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이 있으며, 자유주의 유형으로서 캐나다, 미국, 영국 등이 있음. 특히 영국은 최하위 점수를 보여줌
- 한국은 106.9로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음. 이는 OECD 국가 가운데 5위에 해당하는 점수임

○ 아동의 주관적 복지인식을 나타내는 지표로 건강상태, 학교생활 만족도, 개인적 복지 관련 인지도를 선정하였음

[그림 7] OECD 회원국 아동의 행동과 위험 수준과 주관적 복지인식



주: 아일랜드는 제외됨

자료: 박종일 외(2009), 한국 아동의 행복지수 연구와 국제비교,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을 토대로 작성

- 노르딕 국가 중 스웨덴, 노르웨이가 평균 100점 이상을 보이고 있으며, 핀란드와 덴마크는 평균 100점 미만을 보임
- 객관적 삶의 조건에서 모두 덴마크에 뒤져 있던 독일이 주관적 복지의식에서는 100점이 넘는 점수를 보이면서 덴마크를 앞서고 있음
- 영국은 주관적 복지의식에서도 80-85점 사이에 위치함으로써 최하위권 점수를 보임
- 한국은 평균 71.5점으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를 보이고 있음

## □ 아동복지수준과 아동가족복지지출의 관계

○ 6영역의 아동 삶의 질을 모두 합한 것과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을 비교하여 국가별로 살펴보았음

-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도 높고 아동의 삶의 질도 높은 국가로는 사민주의인 스웨덴, 핀란드와 보수주의인 벨기에와 오스트리아가 있음
- 반면 아동가족복지지출은 높는데 비해서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낮은 국가는 영국으로 파악됨
- 아동가족복지지출 수준은 평균 이하인데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평균이상인 국가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남유럽 국가와 스위스와 네덜란드(보수)가 있음. 그리스와 독일은 양자가 낮은 국가임
- 대체적으로 사민주의와 보수주의 국가에서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이 양호하다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국가 및 남유럽 국가는 아동에 대한 투자와 무관하게 삶의 수준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단, 독일이나 영국과 같은 경우는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낮아 투자 대비 효과성이 낮은 상황임
- 우리나라의 경우는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아동가족복지지출 비중이 가장 낮은 반면, 아동의 삶의 질 수준은 평균을 약간 상회하고 있어, 특이한 양상을 보여줌
- 이러한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종단연구가 필요하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주관적 복지수준을 제고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이 필요한지 심도있는 고민이 필요함

[그림 8] 아동의 삶의 질과 아동가족복지지출



주: 1) 두 좌표의 축은 평균임. (GDP대비 아동가족복지지출: 2,05661, 아동 삶의 질: 100,78958)

2)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미국, 프랑스, 일본 등과 동유럽국가 등은 대상에서 제외됨

자료: OECD(2007), SOCX database, Schupp, Habich & Zapf (1996:19)의 분석틀에 박종일 외(2009)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계산함

## 5. 아동복지수준 제고방안

### □ 적정아동복지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요청됨

- 첫째, 아동수당의 도입이나 세제확대제도가 검토되어야 함
  - 전면적인 아동수당 도입이 단시일에 어렵다면, 저소득층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기존의 양육수당제도의 연령확대를 검토함
  - 한국실정에 맞는 EITC제도를 도입하여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돕고, 아동빈곤율을 줄이도록 함
- 둘째, 각종 현물급여를 통해서 아동의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함
  - 현물급여에는 의료서비스, 방과후 돌봄서비스, 가사지원 서비스, 시간제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항목이 있음.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을 확대하여 극빈층 뿐 아니라 보다 많은 아동이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셋째, 우리나라가 방과후 사업에 대한 지출비중이 가장 높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저소득층 빈곤아동조차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수준이므로 사업확대가 필요함
  - 빈곤아동수에 비해서 돌봄 및 보호의 대상이 되고 있는 아동이 매우 적으므로, 아동복지지원 구조를 재편하여, 개개인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제도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 아동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제고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함
  - 특히 점수가 낮은 주관적 건강, 삶의 만족, 외로움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함<sup>4)</sup>
  - 즉, 아동의 ‘정신건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학력제일주의의 풍토 속에서 거부되고 있는 정서와 관계 욕구가 충족되어야 하되, 보다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아동 정신보건서비스 지원이 필요함

김미숙(복지서비스연구실 연구위원)      문의(02-380-8144)

4) 엄유식·서효정 (2009), 한국 청소년들의 행복과 사회적 권리의 불균등 분포: 사회적 관계망의 관점에서, 행복지수 국제비교를 통해 본 한국아동인권 현주소 세미나 발표자료, 국가인권위원회·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9. 17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